

# SmartWhistle

## 윤리경영 Newsletter 2018년 04월호

### 1. 최근 동향 및 소식

- 文정부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공공부문→민간 확산 전략
-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韓부패사례로 박근혜·이재용 사건 소개
- 골프세트 수수 국립대교수 신고자, 포상금 1500만원
- 재벌 일가 윤리 규제 '조현아·조현민 방지법' 다시 만드나

###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160년 세습기업]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 3. 청렴 위반 사례

- 직무관련공무원인 친구로부터 금전 차용
- 직무관련자의 골프회원권 이용

### 4. 지식마당

- CSV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 5. Quiz

###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 최근 동향 및 소식

### 1. 文정부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공공부문→민간 확산 전략

문재인 정부의 청렴사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반부패 정책이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전략을 짰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난해 180개국 중 51위에서 2022년 2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하여 기관 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개 전략과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8/0200000000AKR20180418095000001.HTML?input=1195m>

### 2.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韓부패사례로 박근혜·이재용 사건 소개

미국 국무부는 20일 펴낸 '2017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재판 상황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와 관련, “헌법 재판소가 3월 부패로 인해 탄핵안을 가결한 뒤 박 전 대통령은 한해의 마지막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며 “측근인 최순실과 공모, 기업들이 수천만 달러를 최순실의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했다.

이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황도 기술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등의 반(反) 정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파문도 ‘시민권적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로 거론됐다.

‘학문적 자유와 문화행사’ 항목에서 “국정원이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가수와 배우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으며,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 과정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블랙리스트 대상은 1만명에 가까웠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의 구속 등을 언급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1/0200000000AKR20180421031600071.HTML?input=1195m>

## 최근 동향 및 소식

### 3. 골프세트 수수 국립대교수 신고자, 포상금 1500만원

퇴임 선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퇴임 예정인 국립대 교수가 퇴임선물로 후배교수 17명으로부터 고가의 골프세트를 선물 받았다.'며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의진술, 각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를 사실로 확인하였으며, A씨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권익위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국립대 교수가 후배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로 770만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국립대 교수와 후배교수 16명은 각각 기소유예, 외국에 있는 후배교수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1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공직자들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점,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포상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으며, 신고심사심의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와 우리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내부자들이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6/0200000000AKR20180306046451001.HTML?input=1195m>

### 4. 재벌 일가 윤리 규제 '조현아-조현민 방지법' 다시 만드나

최근 불거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건과 관련해 "재벌 총수 일가의 비윤리적 경영 행태를 고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시민단체·국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 전무를 포함해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사건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재벌 2,3세들이 고위직까지 쉽게 오르는 상황으로 기인했다. 고위 임원을 맡고 있는 총수 일가들은 사내에서 난동을 부려도 제재받지 않고, 형사 사건을 일으켜도 쉽게 경영에 복귀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소위 '조현아 방지법'을 논의하였으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언주 의원은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대기업 총수 일가가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죄를 지었을 경우 직무정지 또는 면직에 처하며, 일정한 기간동안 경영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더 파격적인 법안을 내놓았다.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안'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때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가 하면, 임직원으로 채용 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기도 했으나, 이들 법안은 국회의 회기 만료로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해외 기업들의 경우 총수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후계자 승계 프로그램 잘 갖춘 상태에서 내부경쟁을 통해 리더십을 갖춘 이를 선발한다."며 "한국에는 이런 풍토가 없고 이사회 등을 통한 내부통제도 기대할 수 없어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702>

## 윤리경영 실천 사례

### [160년 세습기업]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나라로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약 80%에 달한다.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구인구직 활동의 체계적 결합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불리며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수출 주도적인 산업화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스웨덴은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몇몇 가문이 주요 기업을 집중적으로 소유, 지배하고 있기에 스웨덴에서도 반기업 정서는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5대째 세습 경영을 하고 있는 발렌베리 그룹은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로 가문의 독특한 경영철학과 방침을 분석하였다.

#### 1. 160년, 6대 세습을 앞에 둔 발렌베리

발렌베리 가문은 1857년 스웨덴 최초의 근대적 상업은행인 스톡홀름 개인은행(SEB)을 설립하여 대출 기업의 경영에 깊게 관여했고, 경제침체기에는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작업을 이끄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최고 전성기였던 1970년대에는 스웨덴 산업인력의 40%를 고용했고, 스톡홀름 주식시장 총액의 40%를 차지했다. 발렌베리의 사업영역은 은행, 가전, 통신, 항공기 및 자동차, 전력, 산업, 제약, 주식 등 매우 폭넓으며, 이 기업집단의 연매출액은 1,100 달러로 스웨덴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달한다.

스웨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주체인 발렌베리 가문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지만, 각 개인은 스웨덴 부자 명단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 가문의 부는 대부분 공익재단으로 전달되어, 개인의 재산은 빈약하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하지만 핵심 지주사인 인베스트로의 이사회는 발렌베리 가문의 구성원이 장악하고 있다.

#### 2.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발렌베리 가문의 가계도에는 세대마다 한 명의 마쿠스와 한 명의 야콥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는 후손들에게 강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유대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미래세대의 성공을 지원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그룹은 “가족기업이라는 절대 원칙을 이어가되 경영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는 규칙을 기반으로 자녀들을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시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 세계의 금융 중심지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게 하는 치밀한 후계 프로그램을 실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증된 2명이 후계자로 선정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래 발렌베리 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특권보다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가르쳤다.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Essenon videri)’는 가문의 모토 아래 대중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금기시 한 결과, 탈세나 사생활 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



또한, 1980년대 초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케아는 절세를 위해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겼지만, 발렌베리가문은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조세피난처로 가지 않고, 내수 시장에서 창출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였다. 이 밖에도 외무부장관, 스웨덴 국채의 해외 발행 지원 등 오랜 세월을 걸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애국적이고 기품있는 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 윤리경영 실천 사례

### 3.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지배

발렌베리 그룹의 실질적 주인은 가문의 후계자가 아닌 발렌베리 재단이라 할 수 있다. 5대 세습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저항 없이 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을 정점에 둔 피라미드식 소유구조 때문으로 평가된다. 160년간 축적한 부의 대부분이 3개의 재단에 나누어져 있으며, 매년 그룹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발렌베리 재단의 수익금도 전액 기초기술과 학술지원 등 공익목적에 쓰이며, 발렌베리 그룹의 토대가 사회에 있다는 흔들림 없는 신념에 따라 대학, 도서관, 박물관을 건립해서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크누트-엘리스 발렌베리 재단은 탄생 100주년이 넘었으며, 설립 이래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이 135억 크로나(약 2조 30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며, 스웨덴의 과학자 중 재단의 연구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노벨상 위원회에도 거액을 기부하고 있다.



발렌베리 그룹은 기업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지만 재단을 통해 지배할 수 있다는 발생의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1938년 살트세바덴협약(Saltsjobaden Agreement)를 체결하여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오너일가의 기업지배권을 인정하고 ▲기업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특히 해고 노동자의 재교육과 직장 알선을 주선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스웨덴 노사관계 안정에 밑거름이 되었다.

발렌베리는 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을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고, 노조의 지도자들과도 스스로없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4. 투명경영과 사회공헌

발렌베리 그룹의 외형적인 규모나 기업의 경쟁력보다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투명경영과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그들의 경영철학이다. 이것이 160년동안 5세대에 걸쳐 소위 세습경영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지지와 사회적인 존경을 받게 만들어진 원동력이다. 스웨덴 정부가 나서서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적대적인 인수 및 합병 가능성을 차단할 만큼 발렌베리 그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각별한 상황이다. 발렌베리 그룹은 유통이나 식품 등 중소기업형 사업분야에는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윤에 집착하는 기업이 아니며, 엄청난 경제 집중도를 갖고 있지만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문제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다.

재단을 통하여 지주사를 확실하게 지배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주사의 산하 기업들의 경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투명경영’을 실천해왔다는 사실이다. 발렌베리 그룹은 가문의 구성원이 각 계열사의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투명한 독립 경영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자회사에 투자해 주식 시장 상장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경영인 우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일임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책임을 묻는 ‘적극적 오너십’을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발렌베리는 그 내면의 경영철학, 기업가 정신, 사회공헌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 Nordic pyramid, The Economist, 2016

글로벌 기업의 롤모델, '발렌베리 가문', 인사이드코리아, 2015

삼성의 롤모델 '발렌베리'는?, 주간조선, 2012

## 청렴 위반 사례

### 1 직무관련공무원인 친구로부터 금전 차용

□□위원회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A사무관은 아파트를 계약 후 잔금이 부족하자 피평가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학교동창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시중은행이자 수준의 금리 연 8%로 금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아파트 입주 후 몇 달 뒤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함

시사점 :

- ①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위 위원회 A사무관과 피평가 기관인 광역자치단체 평가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됨.
-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1항 은 공무원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및 부동산 무상대여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 2 직무관련자의 골프회원권 이용

○○공직유관단체 대표이사 A는 ☆☆공공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직무 관련자 B로부터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빌려 본인 및 배우자가 네 차례에 걸쳐 해당 골프장을 이용

시사점 :

- ① 공직자 A 및 그 배우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빌려 회원혜택을 받고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 금품 및 향응 수수 위반임

## 지식마당

### CSV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 1. 개요

21세기에 들어서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각 각의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목소 리가 커지고 있다. 2011년 마이클포터가 CSV에 대 한 개념을 처음 선보인 이후 많은 기업들이 CSV를 경영전략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인 CSV활동을 펼치 고 있다. 하지만 왕성한 활동에 비하여 그 효과성 측 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CSV 활동의 측정에 대한 어려움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피터드러커가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 다.”고 말한 것처럼 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 관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며, 본 지에서는 산업정책 연구원과 KT가 개발한 CSV 성과지표를 소개한다.

#### 2. CSV 평가 지표 개발

국내의 CSV 성과 평가에 적합한 지표를 만들기 위 하여 국내외 CSV 및 CSR관련 지표들을 수집하여 전 체 지표의 Pool을 구성하였다.

대분류	지표명	관련 지표 노출 횟수
기업 개요	▪ CEO가 CSV와 조직의 관계...	4
	▪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 설명	5
	▪ 기업목표 공개	1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경제...	1
	▪ CSV 목표설정 및 공개 여부	2
	▪ CSV 핵심영역 정립 여부	1
	▪ CSV 추진 전담조직 유무 여부	2
...	...	...

<CSV 성과평가 지표 Pool>

또한 국무조정실의 성과지표 개발 관리 매뉴얼의 지표개발의 5대원칙에 근거하여 지표 Pool에 대한 세부 지표를 추출하였다. 성과지표는 측정하고자하 는 사업성과의 중복이나 누락을 없애기 위하여 국내 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

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별했다. CSV 관련 자료로는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FSG 등의 지표를 검토했으며, CSR 관련 지표로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 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GRI 의 평가, ISO 26000, OECD, KoBEX SM 등을 고려 하여 추출하였다.

<b>단순성 및 충분성</b>	▪ 단순하고 적은 수의 지표로 주요 내용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함
<b>정량지표 중심</b>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수준의 측정을 위해서 정량지표를 활용하여야 함
<b>결과지표 중심</b>	▪ 투입, 과정보다는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활용
<b>왜곡 가능성 배제</b>	▪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달성이 용이하게 개발된 지표는 제외시켜야 함
<b>시의성 및 적시성</b>	▪ 수시로 측정이 가능하고, 신속하고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해야 함

<지표개발의 5대 원칙>

추출된 지표는 마이클포터가 말한 CSV를 위한 3가 지 차원에 기반을 둔 FSG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구 성되었다. 3가지 차원은 제품과 시장의 재인식 (Reconceiving product and markets), 가치사슬 에서 생산성 재정의(Redefining productivity in the value chain), 지역클러스터(Enabling cluster development)이다.

제품과 시장의 재인식은 전통적인 제품개발 접근법 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니즈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 하고, 그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가치사슬에서 생산성을 재정의 하는 것 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의 가치사슬을 개 선하여 불필요한 배송에 드는 비용을 줄이거나, 에너 지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역의 클러스터를 개발하는 것은 지역 사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소, 물류, 인력공급, 하위 공급업체 등을 집적시킴으로써 공유가치를 창 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 지식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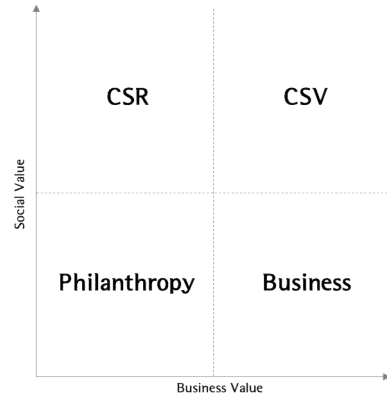
성과평가 지표는 총 54개로 구성하여, 가로축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세로축은 고객, 밸류체인, 지역사회라는 세 가지 수준을 측정한다.

평가는 자가평가의 형태로 실시하여, 지표에 성격에 맞는 증빙자료를 평가지와 함께 제출한 후, 이에 대한 검증을 거쳐 최종 점수를 도출하였다.

### 3. 평가 결과

점수화된 기업의 CSV 사업은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의 수준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구분과 같이 CSR, CSV, Philanthropy,

Business로 평가하였다.



이철승, 이재인, 이선주, “CSV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가치경영' 같 같이 한눈에 보인다”, 2016

< CSV 성과평가 지표 >

구분	Business	Social
고객	▪ 투자수익이 발생하였다.	▪ (경제) 고객의 경제적 비용 지출이 감소하였다.
	▪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 (경제)고객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 (경제)고객에게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였다.
	▪ 신시장을 창출하였다.	▪ (사회)고객의 정보기술 활용증진관련 교육을 제공하였다.(업 연계)
	▪ 기업의 이미지 및 홍보효과가 제고되었다.	▪ (사회)고객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업 외)
	▪ 고객과의 정례적/비정례적 소통 창구가 있다.	▪ (사회)고객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 (사회)고객의 보건·복지 환경을 개선하였다.
	▪ 고객이 프로젝트에 재참여하였다.	▪ (사회)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였다.
밸류체인	▪ 밸류체인의 활용·개선을 통해 사업비용을 절감하였다.	▪ (환경) 고객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 밸류체인의 활용·개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 (환경) 고객의 인프라를 (재)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밸류체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업기회가 발생하였다.	▪ (경제)밸류체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 밸류체인의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 (경제)밸류체인의 소득을 향상시켰다.
	▪ 기업의 이미지 및 홍보효과가 제고되었다.	▪ (사회)밸류체인의 이미지 및 홍보효과가 증가되었다.
	▪ 밸류체인과의 정례적 또는 비정례적 소통창구가 있다.	▪ (사회)밸류체인과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였다.(업 연계)
	▪ 밸류체인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 (사회)밸류체인에 교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업 외)
	▪ 밸류체인이 프로젝트에 재참여하였다.	▪ (사회)밸류체인 내(內) 은퇴근로자의 경력을 활용하였다.
지역사회	▪ 지역사회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 (사회)밸류체인의 프로젝트 참여 환경을 제공하였다.
	▪ 지역사회로부터 비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 (사회)밸류체인의 기존 인프라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였다.
	▪ 기업의 이미지 및 홍보효과가 제고되었다.	▪ (환경)밸류체인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 지역사회의 노동력을 활용하였다.	▪ (환경)밸류체인의 환경기준 준수 지침을 제공하였다.
	▪ 지역사회 기반 기업·기관과 협력하였다.	▪ (경제)지역사회의 금전적 지출이 감소하였다.
	▪ 지역사회와의 정례적 또는 비정례적 소통창구가 있다.	▪ (경제)지역사회의 소득이 향상되었다.
	▪ 지역사회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 (경제)지역사회의 창업을 지원하였다.
	▪ 지역사회에서 프로젝트가 연장되었다.	▪ (사회)지역사회의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하였다.(업 연계-인프라)
	▪ (사회)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개선·활용하였다.(업 외-인프라)	
	▪ (사회)지역사회에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였다.(업 외-교육)	
	▪ (사회)지역사회에 시설 및 기기를 도입하였다.	
	▪ (사회)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 (환경)지역사회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 (환경)지역사회에서 에너지 소비를 감축시켰다.	



## Quiz

1. 다음 중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한 성과지표 개발 관리 매뉴얼의 지표개발의 5대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단순성 및 충분성 - 단순하고 적은 수의 지표로 주요 내용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② 복잡성 및 비효율성 - 데이터만으로 타인이 해석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함
  - ③ 왜곡가능성 배제 -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달성이 용이하게 개발된 지표는 제외시켜야 함
  - ④ 정량지표 중심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수준의 측정을 위하여 정량지표를 활용하여야 함
  
2. 다음 중 산업정책연구원과 KT가 개발한 CSV 성과지표의 지표 Pool을 만드는데 사용된 자료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ISO 26000
  - ② ISO 27000
  - ③ GRI의 평가 기준
  - ④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3. 다음 중 산업정책연구원과 KT가 개발한 CSV 성과지표의 평가 체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고객
  - ② 밸류체인
  - ③ 기업의 재무적 성과
  - ④ 행정절차
  
4.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의 4대 전략이 아닌 것은?
  - ① 함께하는 청렴
  - ② 불투명한 경영환경
  - ③ 깨끗한 공직사회
  - ④ 실천하는 청렴

##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④ “산업 별 기업 윤리경영모델 - 청와대”는 공개된바 없다.
2. 답 ② “윤리경영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는 외국 반도체장비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이 아니다.
3. 답 ③ 부패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은 ‘준수’, ‘집행’, ‘행정절차’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답 ④ 외부 징계 실적은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의 ‘세계에서가장 윤리적인 기업’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 관련 행사

### 1. 여야 4당, '기업 반부패 경영협력 포럼' 개최

지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 주최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요시 여기는 국정 과제인 부패 및 갑질문화 척결을 통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2891>

### 2. 한국철도시설공단, '반부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반부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청렴옴부즈만 외부위원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지킴이들은 열띤 토론을 거쳐 반부패 국제트렌드, 정부의 청렴정책 등 대외 환경과 공단 내부의 윤리경영 운영현황 및 청렴 수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더 배려하는 청렴 KR 실현'이라는 윤리경영 비전 및 3대 윤리경영 전략목표를 수립했다.

<http://www.con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36>

### 3. '2018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26일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6일부터 1박 2일간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의약품 거래 투명화와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해외의 반부패 동향과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윤리경영 이슈인 CSO(의약품영업대행), 매출할인, 지출보고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6\\_0000283087&cID=13001&pID=130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6_0000283087&cID=13001&pID=13000)